

## 스토리텔링을 위한 마을이야기 자원화 연구: 옥천군 사례

A study on the Village story Resources for Storytelling : Okcheon Case

김미희\* · 정명철 · 윤유석 · 강방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Kim, Mi-Heui\* · Jeong, Myeong-Cheol · Yun, Yu-Seok · Kang Bang-Hu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본 연구는 충북 옥천군 장수마을에 전해오는 구전을 채록하여 스토리텔링하고, 농촌마을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구전을 이야기자원화 하는 목적은 첫째, 마을 이야기의 기록 및 전수 둘째,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하여 마을의 문화 체험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옥천군의 구전자원에 대한 조사는 2005~2007년에 연구된 '자연마을지명' 331건과 한글학회 「지명총람」(1,610건)을 중심으로 문헌을 살펴봤으며, 옥천군 전통테마마을인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수마을의 행정단위명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만명마을이며, 마을민 면접조사에 의한 구전 채록은 2010.4.21.~9.15까지 4회 방문, 구전조사카드(2006, 농진청 개발)를 활용하였다. 채록의 주요 내용은 마을 사람들의 구전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기억 하는 마을의 사건, 공간, 생업기술, 생활기술, 창조적 기술 및 자신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 등으로 75건이 조사되었고, 프랭크(Geral Prince)의 서사성 15요소를 고려하여 콘텐츠 소재로 활용 가능한 구전을 마을이야기로 57건 자원화하였다.

자원화한 마을이야기를 지명, 생활, 인물, 생업, 동·식물 등의 소재별로 유형을 구분하면 지명이야기는 '세월의 흔적 세월교', '장수리에 흐르는 보청천', '상춘정 이야기' 등 15건, 생활이야기는 '어린나 이 시집은 옥천할미', '홀로 아이낳는 이야기', '옥천 장수마을 소리 고매 가매' 등 35건, 인물이야기는 '예찬 박성양선생의 효' 1건, 생업이야기는 '귀농 청년의 옥천 성공기' 1건, 동·식물이야기는 '효자들이 만든 생선국수', '뽕 두른 도리뽕뽕이' 등 5건이다.

구전의 이야기자원화 방향은 첫째, 무엇보다도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이야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마을이야기는 후대에 전승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선조들의 삶, 지혜,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을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긍심, 애향심, 애착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지역에서 전해지는 구전과 마을 사람들의 구술은 지역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지역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이야기 자원이다. 기록된 이야기 자원은 스토리텔링 창작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